

추석 지나도 채소값 고공행진

1년전 500원하던 상추 2200원에 거래 쌈채소 덩달아 오름세...서민·식당 비상

추석을 앞두고 급등했던 채소 가격이 내릴 줄을 모르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상추가 1년 만에 세배 이상 급등한다 배추, 무, 파 등 대부분의 채소가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채소값이 급등했다. 26일 농산물유통공사 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상추(치마·100g)값은 2200원으로 1년 전 500원에 팔렸던 것이 무려 340%나 급등했다. 1년 전 3700원에 판매됐던 시금치(상품·1kg) 값도 1만2000원으로 224%나 올랐다. 배추(1포기)는 166% 오른 8000원에, 무(1개)도 1년 사이 두 배나 올라 3000원에 거래됐다. 작년 이맘때 2000원인 살 수 있었던 대파(1kg)도 150%가 올라 5000원에 판매

됐으며, 깎마늘(1kg)도 4200원에서 1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상추값이 세배 이상 오르면서 깻잎, 고추 등 상추를 대체하는 쌈채소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깻잎(200g)과 고추(100g)는 각각 3500원, 800원으로 1년 사이 75%, 60%씩 올랐다. 이날 가격은 추석 대목을 맞아 수요가 많았던 지난 17일과 동일한 것으로, 채소값은 추석 이후에도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서민 가계는 물론이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동구 지산동에서 채식부패를 운영하는 업주 김모씨는 "예전엔 '상' 등급 정도

었던 것이 올해는 '특' 등급을 받으면서 품질은 떨어지는데 재료를 준비하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 문을 여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라며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채소의 품질이나 신선도에 민감해 좋은 재료로 준비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채식부패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야채 종류를 줄일 수도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서구 화정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8)씨는 "반찬 가지수를 줄일 수 없어 어묵 등 가공식품 종류를 늘렸다"며 "5000원짜리 팔면서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3%, 종합소득세 2% 등 15% 떼고 나면 4000원 받는 건데 오른 재료비 대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깻잎, 태풍으로 인해 습도는 크게 늘고 일조량은 줄어드는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채소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채소값이 급등한 것"이라며 "채소류 작황도 좋지 않아 당분간 가격 하락세 기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광주신세계 이마트를 찾은 주부들이 진열대에서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배추 1포기는 2주 사이 2000원이 더 올라 6450원에 팔리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제공>

주간 증시 포커스

조선·자동차 관련주 반등 기대 기관투자자 비선호 종목 주의

글로벌 증시가 선진국 경기 둔화 논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는 비중 있는 경기 지표 발표가 줄이면서 전방미어 선진국 경기 둔화 논란의 가열과 함께 지수 움직임도 변동성 국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성명을 통해 미국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만큼, 일부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되더라도 변동 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번 주는 중국의 경기성장지수와 PMI(구매관리지수) 등 중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을 일정 수준 보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선진국이 경기 회복 둔화 방지를 위해 고려했던 정책이 미국에 무리 중심을 두고 경기 회복 둔화보다는 이를 막아줄 정책이 보다 관심을 끌고 있다. 디스플레이 방지를 위해 양적 완화가 시행된다면 달러 약세가 수반되는데, 이런 전망을 염두에 두고 관련 수혜주가 벌써부터 들쭉고 있다. 알투미늄업체인 알코아와 구리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등 원자재 관련주는 미국 중앙은행의 성명 발표 이후 뒷걸음쳤던 미국 주요지수와는 달리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국 주요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은 것이 그 예다. 이번 흐름은 국내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IT관련주는 부진했던 반면, 내수 및 원자재 등 달러 약세와 이에 따른 엔화 강제 수혜 관련 종목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글로벌 경쟁력이 돋보이는 자동차 관련 종목이 반등에 가세해 코스피지수를 연중 최고가로 끌어올렸다. 따라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선진국 경기 우려에 따른 지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신종구 모멘텀과 선진국 경기 둔화 방지를 위한 정책 재료를 원근 삼아 반등을 모색할 전망이다. 달러 약세 수혜주와 중국 소비확대 수혜주로 분류되는 내수, 금융, 건설, 조선, 소재, 자동차 및 부품 관련주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차별화해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다만, 지수 반등이 커질 때마다 펀드 환매 증가로 기관투자자들이 비중을 줄이는 업종이나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jpark@goodi.com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골드미스들 녹즙시장 '큰 손'

20~30대·여성 주 소비층

국내 녹즙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지난 15년간 20~30대 젊은 층과 여성들이 주 소비자로 떠올랐다. 26일 녹즙시장 1위 업체인 풀무원 건강생활에 따르면 녹즙 사업을 시작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에 불과했던 20~30대 고객 비중은 2000~2003년 15%, 2004~2006년 30%, 2007~2009년 35%로 점점 늘다가 올해(8월 31일 기준) 40%까지 늘었다. 그에 반해 40~50대는 1995~2000년 45%에서 올해 30%로, 50대 이상

도 50%에서 30%로 떨어졌다. 성별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남성(90%)이 여성(1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00~2003년 80%대 20%, 2004~2006년 70%대 30%, 2007~2009년 60%대 40%, 올해 55%대 45%로, 여성 비율이 점점 늘었다. 1990년대에는 가정의 건강을 챙기는 가정주요 고객이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력이 있고 자신의 건강에도 민감한 젊은 직장인인 '골드미스터', '골드미스'가 늘면서 고객층이 점점 젊어졌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백화점·마트 '화창' 편의점·슈퍼 '흐림'

광주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의 체감 경기가 울 4분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기준치를 웃도는 예상이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반면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계절 요인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업체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2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을 조

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RBSI)가 118로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며 경기를 낙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소매유통업의 경기가 밝을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내 각종 실물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계절적 변화에 의한 소비 증가와 연말 특수 등으로 지역 내 소매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체별로는 백화점(133)과 대형마트(117)가 낙관적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은 계절 변동과 연말 특수로 매출

이 3분기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마트 역시 세일 일수 증가와 가격 인하 등으로 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편의점(40)과 슈퍼마켓(90)은 계절적 변동으로 인한 야간 유통 인구 감소, 빙과류와 음료 등 날씨 영향을 받는 품목의 매출 하락,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4분기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상거래(89)도 백화점과 마트 등으로 소비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 경기가 좋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득의 19% 비소비지출...7년래 최고

지난 2분기 가계소득 가운데 조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차비용 같은 비(非) 소비 지출 부담이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월 100만원을 벌면 19만원 가까이 비소비 지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감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구인 1~2분위의 경상조세가 급증해 주목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0%로 작년 2분기보다 0.63%포인트나 상승했다. 2분기에 18%대로 올라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처음이다. 비소비 지출은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차 등 경직성 비용 항목을 말한다. 월급에서 사전 공제되는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비소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처분가능소득은 줄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 /연합뉴스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만 폐지?

일부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는 그대로 둔 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폐지했다. 또 카드사 업무를 하는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농협 등의 시중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카드론 취급수수료가 없다.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는 최고 3.5% 수준에 달하던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폐지했다. 또 카드사 업무를 하는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농협 등의 시중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카드론 취급수수료가 없다.

보통 카드사들은 신한카드가 4월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앤 데 이어 6월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폐지한 것처럼 현금서비스 다음에 카드론 순서로 취급수수료를 손봤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먼저 폐지해 놓고도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애지 않고 있다. 롯데카드, 국민은행, 농협,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은 아직 0.5~2%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하나투어

예약문의 062)224-0022

광주 무안직항기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전일빌딩 1층 투어뱅크

구.도청

금남로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한국농협협회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 파워 1위

브랜즈스톡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스타 1위

한국표준협회선정 (2007~2008) 2년연속 KS-SQI 서비스품질지수 1위

광주, 무안장기계 직항

9월 17일~11월 30일 (화,금) 749,000원

- ◆장기계 관광의 하이라이트 '천문산 관광포함'
- ◆기본 관광 ALL포함(장기계+원가계+보통호+용원동굴)
-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맛사지 체험'
- ◆행사 차량에 지원한 '생수상시 비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려 태로각 협곡등 타이완의 알짜배기 핵심 관광을 4일동안 즐겨보세요!

9월

황금연휴대만 전세기

알찬 상품과 일정을 한번에

타이완 (하루자유+아류+온천) 4일 729,000원

일정: 무안-자유일정-타이페이(3)-무안

특전:

1. 아류해상공원, 중성기념당, 국립고궁박물관, 총렬사 관광
2. 대만 야시장, 온천욕, 타이페이 최고 번화가(서문거리)에서 한류열풍체험
3. 사브사브, 몽골리안 BBQ 등 특식제공
4. 무안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1억원 여행자보험 포함

단 3회

광주(서틀버스)출발 북큐슈 초특가

북큐슈 4일 (9월27, 30일, 10월4일 한정)

429,000 → 389,000원 (9월 30일은 1만원 인상됨)

상품특전:

- ◆백제의 건축기술을 엿볼수 있는 우수신궁 관광
- ◆일본3대성중 하나인 구마모토성(熊本城) 관광
- ◆일본의 아기자기함을 느낄수 있는 유유인 긴린코 호수 및 민에거리 관광
- ◆세계 최대 칼데라를 자랑하는 아소 활화산 관광
- ◆쓰루가이드가 한국에서 일본까지 전일정을 함께 합니다.
- 최소출발인원은 10명이상이며, 광주/부산간 국내서틀버스는 최소16명이상이 되어야만 출발가능합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필수 경비 포함 : 여행자보험(해의 1억원/국내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비/음료, ◆ 선택경비 :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일정외에 명시, 개별적인 팀 및 비자비용 별도 ◆ 서울시 중로구 공평동 1번지 (주)하나투어 ◆ 일반여행업 등록 377호(서울) ◆ 관광 불평신고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5억 보증보험 가입(보험기간 :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 최소 출발인원 : 10명 ◆ 숙소 : 4성급 호텔 이상 ◆ 교통편 : 항공 / 버스 ◆ 상의요금은 환불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0달러는 요금변동없음)